

교회 목표

신앙의 예배
전국일꾼 양성
민속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창간호 1호 **충현교회**의 서목복음사 강간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영현 편집국장: 이영수

주의만찬(2)

떡과 포도주(성찬의 표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고전 11:23b~25)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 주의 마음이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순간

그 밤은 7기억할 만한 밤이었다 - 그 밤은 주님의 공생애의 최절정을 이루는 시간이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전후곡과 같은 시간이었다. 그 밤은 사형수의 마지막 서시시간처럼, 죽음을 앞둔 신주에게는 의미심장하고 긴장된 시간이었다. 그 밤은 어둡음처럼 죽음의 밀려드는 밤이었다. 이 긴장된 밤은 기뻐 웃다가 배신하는 밤이기도 했다. 죄인이 유대의 영혼에 찾아왔으며, 유다는 구주와 친구되신 스승을 배신하고 적들의 공격을 인내하던 밤이었다. 어둡음은 죄악을 상징한다는 말이 잘못된 밤이었다. 불의는 어둠에 밝아지고 하기 때문이다.

그 밤은 배반을 이기신 밤이었다(배반과 승리가 공존하는 밤) -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유다, 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헌신을 보이며 향유를 부던 여인을 비난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의 공생애를 끝맺게 하는 음모를 꾸미는 밤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반과 죽음의 엄숙해 오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이것은 승리였다. 배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승리의 밤이었다.

그 밤은 선으로 탄약을 이기신 밤이었다(탄약과 선함이 공존하는 밤) - 마귀는 유대를 사료장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유다는 유능한 배후처럼 배신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 그의 자부심을 죄악의 자비를 저버린 것이다. 그의 입맞춤은 죄악을 상징하는, 예수를 향한 조롱의 행위였다. 그의 입맞춤은 십자가에서 찢은 옷보다도 더 깊은 예수의 마음을 찔렀고, 더 깊은 상처를 냈다. 그러나 그 밤에 예수께서는 그의 발을 씻어주시고, 친구로서 떡을 나눌 집사로 주셨다. 주께서는 유다가 가장 미약하리던 그 밤에 가장 선한인 하나님이었다.

그 밤은 헌신으로 배반을 이기신 밤이었다(종이애와 오소성이 공존하는 밤) -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배신하였다. 유다는 돈을 좇아 배반을 했으며,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이유로 그들의 주님을 버렸다. 배반되는 주를 부인했고, 버림되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려고 했다. 모두들 떠나가 버렸다. 이러한 연약함과 배신의 가능성은 모두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계속 사랑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는지? 그분에게는 죄악 대신에 은혜가 있었고, 속인 대신에 진리와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더럽혀진 마음이 무엇을 행할지 아시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되었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조종도 흔들림도 없으셨다. 그러므로 은혜는 모든 죄악보다 우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는 모든 죄악을 이기기 때문이다.

“나를 기념하라”(기억하라) - 명령

기념은 역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유월절의 성화) - 예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자비나 능력, 십자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념하고도 직접적으로 경험하셨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희생과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유월절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자신이 이 유월절의 주인이고 안식일보다 마지막 유월절을 행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기억 하라”는 의미는 이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에 기초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유월절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생각해 보라).

기념은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예수와 그의 죽음의 의미를 떠올리는 것) - 기념일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것을 되새기듯이, 주의 성전도 제자들이 과거에 실제로도 경험했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기억하도록 도우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수께서 “반대 드리스 제사(히 9:28)는 결코 반복될 수 없으나, 그가 제물이 되신 희생의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의 죽음을 경험했던 그들의 과거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주의 죽음은 한 번으로 완전하지만, 그의 죽음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기념은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기념의 기쁨) - 십자가의 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향한 경이심과 감사와 존경을 동일하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이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우리는 종이여, 우리의 과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나누는 그분의 친구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제자들은 “내가 당신을 기억하리이다”라고 고백한다.

“떡을 가지사 ... 잔을 가지시도”(성찬의 표지)

성찬의 표지 - 기독교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는 각각의 표지가 있다. 세례의 표지는 ‘물’(water)이고, 성찬의 표지는 ‘떡과 포도주’이다. 특히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의 사막 표지인 떡과 포도주는 물질적인 것이며, 이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성찬이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자에게 제물을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선택해서 자의 영적이고 신적인 식사의 성령의 성찬으로 삼으셨다.

내적인 의미 - 외적인 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의미이다. 세례의 표지인 물이 귀중한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찬의 표지인 떡과 포도주에도 아주 귀중하고 존엄한 내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외

고난주간 금요일집회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 특별금요집회
주제발표(“나팔”)와 성만찬을 통한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며



이번 주 금요일에는 고난주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보내게 될 특별한 집회를 갖는다. 금요일 하루 동안 충현의 모든 성도가 금식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적적 집회 시간에는 “나팔”이라는 주제로 성경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편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본다.

이번 금요집회시간에 발표할 주제를 위해서 발표자들은 오랜 기간동안 말씀연구와 기도로 준비해왔다. 이들이 발표하게 될 나팔에 관련된 주제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출현과 영광을 상징하는 인제의 나팔, 대위기와 민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족락함과 화목함으로의 초창을 위한 속죄의 나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난 전쟁의 용사가 들어야 할 소명을 상징하는 전쟁의 나팔,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타난 왕을 임명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즉위의 나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시편을 통해서 나타난 예레미야의 찬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상징하는 찬양의 나팔,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범죄의 나팔, 이사야와 에셀렐 등의 선지자와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난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심판의 나팔,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상징하는 부활의 나팔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는 지난 천지창조와 3주 동안 다루었던 ‘성만찬’에 대한 진리를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하늘의 식탁이 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순서들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고백과 헌신,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참된 영적인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적자적인 떡과 포도주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비해서, 그 떡과 포도주에 담긴 내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주를 향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만 볼 수 있는 영적이고 신비한 것이다. 비록 그러한 음식이지만, 그 떡과 포도주에 담긴 영적이고 내적인 가치는 성상을 초월하여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놀라운 ‘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믿음으로 나누기 되는 공생애(분열을 극복하는 능력) - 그렇다면 성찬의 표지인 떡과 포도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그것은 영적이고 신적인 연합을 보여준다. 한 뭉치 한 뭉치 곡식들이 모이지고 뿔어져서 떡이 되고, 또 한 뭉치 한 뭉치 포도들이 으깨져서 즙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과 동행한 본체이니 자기들을 비어 종의 형제를 입으신 그리스도주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성찬의 식탁에 초청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귀족한 교제’(holy communion)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에는 십자가와 나팔 한 뭉치 묶음을 이루는 영적인 연합의 신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자들은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함께 기쁨과 고난을 나누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진 것처럼 희생과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내면의 악덕으로서 속죄와 의의의 제물이와 관계에 대항하여 함께 싸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들 유다의 배반은 당연한 결과이다.

영의 양식 - 또한 떡과 포도주는 신자를 강건하게 하는 영의 양식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이 초자연 음식에 내포된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강건하고 힘있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믿는 자들이 이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비 생명의 양식은 이 세상의 도전과 조롱으로 인하여 영혼을 지킬 수 없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천국의 메시지가 된다. 그러므로 영적인 우리들은 성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늘의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명령을 잊지 말라. 그리고 서로의 고함과 불평을 함께 질피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야 하고, 모든 때마다 성찬을 행해야 한다. 초대교회와 오늘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함께 고난과 슬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산 신앙’(Living faith)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믿음을 포기하고 그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진정으로 일치하는 길이다.

믿음의 양식 - 초자연 떡과 포도주에 담긴 놀라운 내적인 의미는 초자연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내적인 의미이고, 배움과 이론으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그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늘의 은사가 배워지듯이,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하늘의 분이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져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제정하신 초자연 떡과 피의 식탁을 계속적인 신자로 참회하게 하려 하지 말라. 주께서는 보잘 것 없는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존중하고 받아먹는 성도에게 하늘의 은사를 넉넉히 부어주시길 수 있기 때문이다.

Jesus Christ's Resurrection

(1 Corinthians 15:12-15)

*Now if Christ be preached that he rose from the dead,
how say some among you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This important fact, that Jesus Christ resurrected (rose from the dead), is the cornerstone of the church of Christ. He is the way, truth, and life. His resurrection really shows who He is. Paul told the Corinthians, "Now if Christ is preached, that He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how do some among you say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But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n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then our preaching is vain, your faith also is vain. Moreover we are even found to be false witnesses of God, because we testified against God that He raised Christ, whom He did not raise, if in fact the dead are not raised (vv. 12-15). Without Jesus' resurrection life is empty and every witness is false. So this witness, that Jesus is resurrected, totally relies on God. Jesus Christ's resurrection is what theology is all about. It's the heart of Christian faith. It's the fundamental nature of Christianity.

The church must preach Jesus' resurrection. The first witness is the resurrection of Christ. That's the church's responsibility. And not just the first witness but a continual witness. The church has to continually proclaim Jesus' resurrection. The church has to praise, proclaim, and pray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Its existence depends on Jesus' resurrection. The way a church proclaim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determines whether it will live or die. If a church doesn't understand, it's dying or dead. If a church understands, it's living and alive. So, really the church's one foundation is Jesus Christ the Lord. She is His new creation by water and word. From heaven Jesus came and sought to be the church's Holy Bride. With His own blood He bought her and for her life He died. The elect from every nation come under her domain as one in all the earth. The church's charter of salvation is one Lord, one faith, one verse, and one Holy name. She blesses and partakes of one holy food, and to one hope she presses with every grace endowed.

Sunday is the perfect witness of His resurrection. Sunday is the Lord's Day. It used to be kept as the Sabbath Day, but now Sunday is the day for Christians. Sunday is the day Jesus resurrected. That's why it is the Lord's Day. In church history AD 32 is the time when they changed the Jewish calendar to reflect the Christian worship day. Let's look at Mark 16:1&2, "When the Sabbath was over,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bought spices, so that they might come and anoint Him.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y came to the tomb when the sun had risen." Jesus rose, He was alive on that first day. In the primitive church Christianity was organized by mostly Jewish people, but they changed the worship calendar because His resurrection was so important.

The New Testament also witnesses to Jesus' resurrection. All twenty-seven (27) books emphasize, reemphasize, and emphasize some more the resurrection of Jesus. On every page we see He is dying, overcoming death, and that one God sent Him to us. Without His resurrection there is no Messiah. The whole New Testament confirms and reconfirms Jesus' resurrection. Amen.

Jesus' disciples witness to His resurrection. They were cowards as they lived for three years with Him, witnessing His amazing miracles. They saw Lazarus rise from the dead. They saw lepers being healed. They saw blind men see. They saw all kinds of sick people healed. Yet, even after all these things they still were cowards, they still followed worldliness. But after they met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they changed. Oh, how they changed. After Jesus' resurrection the disciples did nothing but proclaim His resurrection. If you don't have His witness while your dying, you're not going to have it for your living. The disciples found their living purpose. Now they want to proclaim Christ's resurrection, they want to proclaim eternal life even under persecution.

All believers witness for Jesus' resurrection. Why? Because He is alive, You may ask me how I know He lives. I know because He lives in my heart. He changed me. He made me born again into His new creation. He is my Lord and Savior. Look at John 20:18, "Mary Magdalene came, announcing to the disciples, 'I have seen the Lord'" Who is Mary Magdalene? She was a woman with seven different devils in her. She was so dirty and defiled. Yet, she was the one who proclaimed to the disciples, Jesus' disciples, "I have seen the Lord" Amen.

My dear friend, today is Easter Sunday. Do you really believe in Jesus? This is a serious question. The church witnesses to His resurrection. Sunday witnesses to His resurrection. The New Testament witnesses to His resurrection. The disciples witness to Jesus' resurrection. All true Christians witness to His resurrection. Do you have Jesus Christ in your heart? If you do you can say, "I know Jesus Christ for He lives in my heart in all ways and always." 🙏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고전 15:12~15)



김성관 목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에 담긴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중요한 사건은 그리스도 교회의 초석(礎石, 또는 모퉁잇돌)이 됩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12~15절). 맞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공허한 것이며 모든 증거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의 증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학에 있어서 절정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중심이며, 기독교의 기초적인 본질입니다.

가장 먼저 선포해야 할 부활

교회는 반드시 예수의 부활을 전파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증거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이것은 교회가 보여야 할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가장 우선적으로 증거되어야 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나가는 길은 교회의 사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교회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러한 교회는 활발한 생명력을 소유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교회의 유일한 한가지 기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는 물과 말씀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께서는 교회의 거룩한 신앙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를 흘려 교회를 사셨고, 교회의 생명을 위해 죽음을 이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으로부터 선택된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한 몸이 이룬 지체로서, 교회의 통치 아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여된 구원의 특성은 주(主)도 하시고, 믿음도 하신이며, 세례도 하시고, 거룩하신 이름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신성한 은혜를 베풀고, 그의 백성들을 거룩한 한 식탁에 참여하게 하며, 한 소망의 위해 교회에 부여된 모든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일, 주께서 부활하신 첫 날

주일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완전한 증거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주일은 안식일로써 지키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오늘날 주일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일이 ‘주의 날’이라는 이유입니다. 교회역사를 보면, 주후 32년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날(주일을) 방백(방백)하여 유대인의 달력을 바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려”. 예수께서는 그 첫날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초대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부활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안식일에 드리던 예배의 요일을 매우 첫날(주일)로 바꾸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약성경의 증거

신약은 또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모든 27권의 성경이 거듭 강조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장에서 주께서 죽었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한 하나님께서 동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부활 없이는 메시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약성경은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고 확증합니다.

부활의 증인들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겁쟁이들이었지만, 주님과 함께 삼 년 동안 함께 살았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나병 환자 치유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것과 각색 모든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도 그들은 여전히 겁쟁이들이었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들은 진실로 변했습니다. 진실로 그들이 변한 것에 대해서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의 부활만을 선포했습니다. 만일 여러 분이 죽을 때에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한 부활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마침내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자 했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부활의 증인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구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 마음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저를 그분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요한복음 20:18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니까? 그녀는 잃은 귀신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치스럽고 불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제자, 예수의 제가가 될 것을 선언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가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것은 매우 진지한 질문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일은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신약성경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녀는 잃은 귀신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마음에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의 모든 길이 되시기 때문이다.”

2002 단기선교 국가소개 ⑥

카자흐스탄



CIS나라들 가운데서 러시아 다음으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몽골과 중국, 우즈베키스탄에 인접해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넓은 땅을 그냥 내버려두고 주로 도시에서 살고 있기에, 이번 단기팀은 '도시 중심의 선교'를 계획할 수 있다. 옛날 수도인 알리마타와 지금의 수도인 아스타나 그리고 그외 켄트케, 가라간다,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와 같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문화와 교육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떤 단기팀은 이에 맞는 선교사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자해독율 100%,

전도지 사용이 가능). 또한 단기팀이 들어갈 때 이곳은 낮에는 30~40℃의 매우 덥고 건조하지만 밤에는 기온을 입을 정도로 쌀쌀하므로 이에 대비한 옷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주로 빵과 고기(양, 소), 특히 기름기 많은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음식인 '베슈파르 마크'도 양고기야 야채, 밀가루반죽으로 만든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사용되는 화폐 단위는 텡게 (Tenge)인데 150텡게가 1달러 정도이다. 구 소련의 붕괴 후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 달 소득이 100달러가 넘지 않지만 도시의 대부분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카자흐족 (70%), 러시아인 (15%), 타타르족, 우유구르족, 등 약 40여 개 민족이 살고 있다. 이 중에는 약 10만 명 정도의 고려인들도 있다. 도시 중심의 선교 안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특히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할 수도 있다. 80% 이상이 모슬렘이지만 여러 민족에 따른 여러 종교가 있기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또한 대부분 카자흐인들은 카자흐식 민족 이슬람에 영향을 받고 있고, 단 5%만이 이슬람 관례를 따르고 있다. 현재 개신교인의 수가 2%도 안 되지만, 복음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어서 속히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도 제목

1. 카자흐족들은 복음을 들을 확실한 기회가 없었다. 현재 4복음서가 발행되었고 구약과 신약이 부분적으로 번역되어 발행되었다. 성경이 올바르게 번역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기도하자.
2. 카자흐스탄의 모슬렘들의 개종을 위해서 기도하자.
3. 카자흐스탄의 개신교들이 믿음을 지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자.
4. 중국들 사이에 갈등으로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정부 지도자들이 인종적, 종교적 극단주의와 압제를 배제하도록 기도하자.

성령이 말하는 인간 10

죄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

인간이 지은 죄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율법 수여자를 공격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또한 죄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흠 없는 거룩함에 도전하는 것이다(벧전 1:1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낙원에서 인간에게 경고하신 형벌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말한다.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로 간주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인간은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초래된 죽음의 상태 안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초래된 삶의 고통도 죄에 대한 형벌의 일부가 된다. 죄는 인간의 삶 전체를 교란시킨다. 인간의 육신적인 삶은 연약하여 질병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불안과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그의 정신 생활도 그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까지 방해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또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도 죄의 형벌의 일부본다.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 3:19)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점이 분명해진다. 바울도 "죄의 값은 사망이요"(롬 6:23상)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죄의 형벌의 절정으로 영원한 죽음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속박이 제거되고 죄로 인한 부패가 완성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받는 자에게 임한다. 인간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의미에서의 죽음이다. 영원한 고통의 상태로 들어가는 형벌이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 외에는 이 무서운 죄의 형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롬 5:9)

다음주에 계속 (이성욱 목사)

세계선교를 앞두고

방 소 에 (권사, 17교구)

혹독한 추위를 견디어 낸 나무꾼이 아름답고 향기 짙은 꽃과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그렇게도 끈질기게 도전하던 약한 세력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선포하고자 하는 충현의 하나님 일꾼이 나아가는 길은 감히 막지 못할 것이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이 충현의 앞에 펼쳐진다. 얼마나 벅찬 감동과 설렘인가? 세계를 향한 선교가 법외회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담임 목사님의 전리의 선포와 기도 그리고 인내가 이제 아름다운 꽃망울이 되어 새봄과 함께 세계를 향하여 활짝 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샘하는 찬 바람이 있다. 우리는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의 일을 맡기시고, 그 뜻을 성취하신다. 충현교회에 이제 막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 같다. 새로운 도전 목표가 세워졌고, 참여코자 하는 열망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될지도 모른다.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것도 세계를 향하여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나 개인과 충현교회 위에 길을 열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른다. 각 분야에서 준비하고 추진하는 일꾼들을 위하여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이 충현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꿈과 기대한 계획들이 어떠한 아픔과 경로를 통하여 이룩하셨는지를 온 천하에 들어 내 보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 선교는 시작됐다. 온 충현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되어, 사랑으로 하나되어, 막힌 담을 헐어 버리고 서로 손 잡고 선한 주님의 일에 다 참여하여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충현의 일꾼들이 되자.

2차 1박 선교수련회

일시: 3.26(화)-27(수)

시간: 오전 10시~다음날 새벽 6시

장소: 제2교육관 2·4층

대상: CMTC 1차토요·주일반, 1차집중반

*1·2차 1박수련회 중 한번이라도 참가해야 훈련 수료가 되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CMTC 2차 개강

(1) 주일반 / 4.7(주일) 오후 6:20, 갈릴리움

(2) 토요반 / 4.13(토) 오후 5:00, 갈릴리움

*아직 훈련에 미참석하신 분들은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한 주일 기도회

단기선교를 기도로 준비함시대

일시: '매주일' 오후 4:00~4:40

장소: 갈릴리움

아내가 된 마누라

정선 현 (필사, 신혼가정부 부강)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서로의 표정은 예상通り 않았습다. 한잔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침묵로 길을 걸었던 제 처음은 아니었는데 그날은 예상通り 않았습다.

"정말이야! 다음주부터 나는 신혼가정부 나가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 나 혼자 나가든지 말든지..."

맞벌이하느라 피곤하다는 핑계로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별 대화 없이 풀아 떨어져, 다음날 아침에 부스스한 얼굴을 보여주기가 무섭게 밥을 먹는 등 미는 등 다시 회사로 달음질 쳐야하는 신혼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라고는 주일이 되어야 겨우 시간을 낼 수 있었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우리는 서로 다른 주장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한 날은 오히려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기 일쑤였지요. 아내가 신혼 가정부 분반공부 모임에서 이러한 불만들을 남들에게 이야기하면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일방적인 권위는 하나씩 뚝뚝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고, 아내의 요구사항은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려라나, 설거지를 도와달라나..... 하여튼 이 일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나는 여태까지 남에게 보여왔던 경건한 척 하던 나의 모습은 곧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마누라에 대한 나의 권위는 물론 집 안에서의 나의 휴식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마누라가 분반 성경공부시간에 나의 늦은 귀가를 고지했(?!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갈 다시는 신혼가정부에 참석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신혼가정부에 나오는 남편들은 뭐가 즐겁다고 저러들 좋아하는지 속도 없는 남편들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도 나는 신혼가정부에서 고개를 꼭 숙인 채 부부성경공부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 성경공부를 통하여 우리 부부의 삶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만 가득 말이 많은 내내는 좀더 조신하여졌고, 권위적이며 자존심만 생각하던 나는 마누라가 아닌 삶의 동반자 아내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부부생활을 하려 했었지요. 그러나 말씀 속에 부부 생활의 방법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고전 14: 35)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귀롭게 하지 말라"(골 3: 19)

정확하게 20년 전 일입니다.

움직이는 신앙

이정환, 이영희 부부 (신혼 가정부)

저희 부부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울 끝나겠지, 금방 해결되겠지' 하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참고 견디라고 생각했던 것임니다.

그러던 차 신혼 가정부 겨울 수련회에서, "너희가 얻지 못한은 구하지 않음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한은 잘못 구함이라"라는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을 계기로 "생활 속의 죄짐을 지고 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지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지고 견다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을 많이 절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짐 때문에 힘들어 할 것이 아니라 죄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찬양해야 하며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생긴 문제는 실상 문제가 아닌 것임니다. 내가 짐을 지고 견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을 져 주셨으니 그 짐은 내 것이 아닌 것임니다. 우리 예수님께 맡기더라고요 구하면 되는 것임니다.

이제 주님은 저희에게 변화되라고 외치십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주님을 따라 변화할 것임니다. 출현 기도원에서 외치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신혼 가정부의 일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길 것임니다.

저도 이제 8월이면 곧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됩니다. 두 아이 중 누구를 편애하지는 않았지만, 내게 외지하며 구하는 아이가 더 이쁘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딸이 영영영영 기고 뽀뽀뽀뽀를 할 때 신발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 '내게 외지하고 구하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글/이정환)

복있는 사람

방준영 (목사, 신혼가정부 지도)

여러분은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긍정 혹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의 개념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임니다. 이에 대하여 한489장을 우선적으로 좋은 목장 재료가 됩니다. "세상 모든 풍과 너를 흔들어 놓을 때, 세상근심 각것 너를 누를 때, 세상 근심 너의 앞길 막을 때, 주께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가 주께 받은 복이 무엇임니까? 성령에 감동받은 마음은 어떻게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셨다"(엡 1:3).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임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흔들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에 속한 것임니다. 이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구원' 임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은 복의 처음이요 끝, 전부임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음으로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나그네의 삶을 끝낼 때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임니다. 그때, 우리 손에 가진 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다. 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주를 바라보며 영원토록 찬양할 것임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체는 어떠합니까? 구원은 기본이고, 그 위에 이것 저것을 채워가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기쁨을 잃고 낙심하고 갈등하기 쉽습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마음의 찬송과 감사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 복된 가정임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외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라. 예호와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신 33:29).

대학·청년부 성극 제3회 정기공연 "소망의 노래"

일 시 : 4월 6(일)도 19:00, 13(일)도 19:00

장 소 : 복지관 지하2층 마르다룸

나의 사랑, 나의 남편

정지현, 이창호 부부 (신혼 가정부)



가끔씩 우리 부부가 농담으로 주고받는 대화がありました.

"우리 남편, 뭐 먹고 사나?"

"우리 남편, 사랑 먹고 살지."

이 얘기를 신혼 가정부 식구들에게 했더니 모두들 답살 커 풀리라며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항상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만 살아온 것은 아니랍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의 권유로 믿을 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과 계획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아는 것도 없었으니 우리 가정에 대한 사명감과 배우자에 대한 소중함도 부족하여 주님이 가르치신 아내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온전할 리 없었지요. 결혼 초에는 남편의 장정보다 단정을 바라보면서 불만을 가지고, 힘든 일에 처해 있는 남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보다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쓴 말만 골라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고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사모하기보다는 내게 더 잘해주고 더 많은 이해와 관심,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아내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 성경공부를 통해 아내와 남편이 왜 연합해야 하는지 어떻게 연합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을 순종하시되 그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고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사모하기보다는 내게 더 잘해주고 더 많은 이해와 관심,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아내였답니다."

남편은 부족하고 못난 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말입니다.

지금쯤 결혼 7년째, 그 동안에 힘들었던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부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멀게 보여 낙심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와 또 작게는 저를 통해 갖고 계신 많은 계획을 믿고 소망합니다. (글/정지현)

[한국교회사] - 초기 선교 정책(2)

네비우스 선교정책

한국선교가 케도에 오르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입국하게 되자 그 기본 정책을 수립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레서 1890년 6월말에 한국 주재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30년 넘게 전도사업을 벌여온 노련한 선교사 네비우스 목사를 초빙하여 2주간 선교 세미나를 열었다.

자지·자립·자전의 원리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교인을 자기 직업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 자기 직장과 자기의 생업을 통해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인전도).

둘째 교회의 운영과 구조조직은 그 교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적, 실천한다(자치).

셋째 교회에서 전도사업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나오거나 재정을 공급할 만한 사람이 생기면 그들을 선임하여 지도인원으로 육성한다(자전).

넷째 교회당 건축은 가급적 교인들 자신의 힘으로 하게 하되 건축주조차 모임을 한국교회의 양식으로 짓도록 한다(자립).

한 마디로 '독립하고 자립하며 권위적인 토착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자립교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자력전도와 자치제도 및 자급운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선교는 한국인들의 손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인 셈이다. 이 정책의 성공으로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성장할 수 있었다.

교회조직과 운영면에서 네비우스 정책은 괄목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한국교회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한편으로 구제적 실천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장기적 발전에 방해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즉, 구역자의 자질문제 및 교회의 대사회적 무관심이 아직까지 한국교회와 안고 있는 맹점의 하나라고 지적한다면 네비우스 정책의 역기능도 또한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네비우스 선교방식의 장점은 충분히 단점들을 상쇄할 만큼 좋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터로 하여 자급자치의 원리 밑에 희생과 봉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도의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게 했으며, 교인들에게 자립정신과 규칙적 헌금의 습관을 주었다. 또한 한국적인 교회 건축 양식과 한국교회의 자주 치리를 강조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서양화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양적, 질적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주간성경공부

일여성경반 (주한장로, 수요일 12:40~14:00, 교육관 201호)

일여성경반은 일본어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그를 믿는 믿음의 목적이 대하여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말씀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양요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갚아주며 더하여 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후 4:15).

3교구 손일생 집사(여 70세) 위암 수술 후 자가 치료 중입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교구 이정자 권사(여 62세) 암이 전신에 퍼졌습니다. 믿음으로 평안할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0교구 박옥순 집사(남 68세) 간경화로 약물 치료 중입니다. 간암으로 전이되지 않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7교구 김창환 성도(남 73세) 당뇨병으로 위독합니다. 병의 치유와 믿음으로 평안할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 용 희' 형제를 소개합니다



아내와 두 딸이 있으며 직업은 프로골퍼입니다. 골프를 가르치다 전도를 받게 되었고, 늘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기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항상 불안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편안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사대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으나,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얻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대해 배우고 잘 믿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신 새가족부 집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구역탐방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도봉 1,2구역

구역장: 백남희, 김하경 집사



도봉 구역은 시작한 지 1년 남짓한 신생 구역이다. 그렇지만 말씀과 교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 신생 구역 같은 느낌이 없었다. 신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성도가 있었지만 네 구역원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초대교회 바울의 권면을 연상케 했다.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 자기부인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였다. 베드로는 예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예수께 경배한다. 언뜻 생각하면 베드로를 충성시킨 제자이며 정의로운 자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은 거룩한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예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인간적인 감정, 가치관, 판단을 떠나서 생각하여 주의 일을 그르치는가?

한 성도는 성경을 봐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보고 판단하여 마 베드로도 자신과 같았던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리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해도 간파해 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보고 싶지 않은 말씀은 간파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 성도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위치를 논한 것처럼 자신도 자주 세상에서 즐거움을 갖는 것만 신경 쓰게 된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성도는 아이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천국 가겠어?" 하고 꾸짖었다. 아이들이 "우리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가"라고 말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잘못 믿고 있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출세를 말하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있는 않는가? 생각하고 지나갈 문제가.

도봉 구역원들은 제자들이 나중엔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귀 기울여 이해하도록 노력하자고 서로 권면했다. 한 권사님은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특히 새신도에게는 구역예배가 끝난 후에도 복음의 권면이 계속되었다. (권요셉 기자)

다음주 찬송

154장 예수 부활했으니

이 찬송은 런던 어느 교회의 부활절 예배를 위하여 1739년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 목사가 작사하였다. 원문에는 이 찬송시의 행렬 끝마다 두마리 부르게 되어 있는 히브리어 '할렐루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편찬자가 부활절 찬송으로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를 붙인 것이다.

- 1절: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시니 건달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엘리 엘리 레미 사바디"라 하고 하시며 죽어갔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심패한 자요 슬픔의 사람이었으니, 사울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를 사랑하며 따르니 자들은 천회의 화상을 티트될 수마에 있다. "주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인내들과 천사들로 말하라, 할렐루야! 너의 즐거움과 환희 드모라, 할렐루야! 노래하라, 회당마다, 하늘과 땅이며, 할렐루야!"
- 2절: "사랑아 너의 이름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의 말씀을 문을 구하셨다. "영광의 왕 다시 사신다, 할렐루야! 오 사랑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주가 한 번 죽어 내면 구하시니, 할렐루야! 오 무덤아 너의 속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밧임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고전 15:57)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다. "사랑의 구속 사신다 되셨네, 할렐루야! 사육은 이겼네, 할렐루야! 사영은 첫되이 주의 부활을 선포한네, 할렐루야! 그리스도 천국 아시네, 할렐루야!"
- 4절: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나타내어 부활의 소망을 믿게하고 있다고(고전 15:20). "이방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고전 15:22). "우리의 귀한 마리아님의 주의 뒤 따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이끄는 곳으로 우리 오로세, 할렐루야! 주와 같이 되고 주처럼 우리 일하리!"(로마 8:17). 할렐루야! 십자가와 천국은 우리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임양복원찬)



은혜

강 가 일 (예배부수와통학)

후다다 후다다. 오늘도 힘겹게 거룩한 주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간다. 예배시간 지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더군다나 오늘 예배는 내가 수와 통역인데! 순간 나도 모르게 반성이 쏟아진다.

“아... 난 왜 만날 늦는 거지? 이제 정말로 일찍일찍 다녀야지. 주여, 용서하옵소서.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늦지 않고 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성과 회개를 반복하는 동안 어느덧 예배당 앞까지 왔다. 짧은 시간이지만 수와 통역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다. 순간 주님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끌어내 주시고 기쁨을 깨닫게 해 주셨다.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인다. 기도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주님 말씀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 언제나 케모름 피우며 주님 전에 나오길 지체하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같이 기도하며 이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고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에 감동하여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움직였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수와 통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 것을 느낀다. 특히 수와 통역중, 말씀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농이인 성도를 볼 때면 더욱 그렇다. 그런 성도를 보고 그 모습에 은혜 받아 눈물을 흘리며 수와 통역을 한 적도 있다. 예배 수와 통역이 끝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다. 내 생각엔 수와 통역을 매끄럽게 잘 한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에 예배 후에 친한 언니한테 살짝 물어보면 더 연습하라는 말을 듣는다. 반대로 중간 중간에 단어로 빠먹으면서 농이인 성도들에게 묻는 것도 많이 봤다고, 수고했다고, 수고했다고 인사하는 말을 들곤 한다. 하나님은 조금도 교만해지는 내 모습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 오히려 철저히 나를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신다. 늘 체류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도 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시 37:5).

진리의 생

학개(Haggai)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2)

그리고 ‘학개’ 서는 성전(聖殿)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재건을 게을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외치는 그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서 성전을 정결하게 세우려 하시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많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쏘으시니 상을 얻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고 2:17).

또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만국의 보배’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신약의 여러 증인들에 의하여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절대로 거졌으니’라고 고백했고(고후 4:7), 베드로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이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고 선언하며(벧전 1:19),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 돌’이요(벧전 2:4), ‘내가 택한 보배롭고 고귀한 모퉁이 돌’이라고 선언했습니다(벧전 2:6).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보배로운 믿음’(벧후 1:1)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의 예언 속에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종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인’(signet ring)이 되게 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단 2:23). ‘인’이란 당시의 사람들이 문에서 사서 대를 나타내는 것인데,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마침내 오셔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날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2-13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개’를 읽으면서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주의 전’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 바쁘고, 출세에는 일에 분주하게 움직이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잘못 정해진 우선 순위, 그것은 결코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조처라는 성령의 인도함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김동학 목사(출판국 지도)

역설의 기독교

박 경 배 (외선부수 교사)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는 말에 아직도 ‘아멘’으로 화답하지하시는 분이 많으십니까? 그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맘몬 신앙에 대항하여 싸운 지가 5년 여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신앙의 만복을 땅의 것에서 찾으려 하는 시도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는 식의 단순한 개념은 전에도 매우 유용한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신흥교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오묘한 비밀을 인간적 사고로 단순화시키며, 성령님의 능력을 땅의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위로부터 거슬러오는 창조주의 역사를(“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배제시켰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큼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독교를 단순하게 만드려는 유혹에 대해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순화의 기저에는 ‘기독교’가 ‘자신의 본성에 관한 절대 불변의 사실을 공표하신 하나님의 말씀’(C.S. 루이스). 사실상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 낸 이타의 종교부류와는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로는 전연 예측할 수 없는 기묘한 비틀림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종교이고,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후로, 죽은 자가 다시 산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사도가 ‘날마다 죽고’(고전 15:31), ‘약한 데서 온전’(고후 12:7)하여 지며, ‘죄인 중의 피수’(딤후 1:15)가 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의 성도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고집과 끈관을 기뻐하며(고후 12: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를 부요케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고후 6:10) 분별입니다.

요즘 같은 때엔 이같은 십자가의 역설을 실천하는 신앙의 선배가 그림습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인간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이 한 구절은 사실을 선포하고, 온 우주의 역사가 이 말씀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라세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창 1:26-27). 사람의 창조는 분명히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1) 다른 생물은 종류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2)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의사, 목적, 모양을 말씀하셨습니다(26:28). (3) 다른 피조물은 그저 ‘있으라’라고 하셨지만, 사람에게에는 “하자”(권유형)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4) 다른 창조를 보시고는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중심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모든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거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신을 연상케 하는 것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명령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모든 생물을 다스리라”(28절). 하루도 허가나, 파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만들어 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이 두 가지 사역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저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 다스려야 할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우리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참 행복과 평안을 원한다면 먼저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 받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권형임 기자)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이번 주간은 아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새벽기도회를 가진다. 총현의 모든 성도들은 다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기간 : 3월25일(월) ~ 29일(금)

다음주 새벽기도회 기도 담당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31(주일)
이준경	여성기	류병희	노경득	이종철	여국근	김영훈

모임

1. 교구위원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30

장소 : 당회실

2. 남전전도부 월례회

일시 : 오늘 15:15

장소 : 칼빈홀

3. 군전전도부 월례회

일시 : 29일(금) 17:30

장소 : 베다니홀

4. 교정전도부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배후라기홀

5. 안수집사회 찬양연습

일시 : 오늘~4월 7일 15:30

장소 : 교육관 314호

6. 권사 4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수요일~매 주예배 후

장소 : 영아부실

일시 : 오늘 19:00

장소 : 오수민 집사대

(하안동 주공910-102, ☎992-3448)

3. 루디아 1지회 월례회

일시 : 29일(금) 12:30

장소 : 베다니홀

별세

1. 김병균 성도

(김태형·김진성 씨의 부친, 8교구 중곡 2구역) / 15일 별세, 18일 장례

2. 윤두환 은퇴장로

(권연호 은퇴권사의 남편, 10교구 상계2 구역) / 19일 별세, 21일 장례

3. 김보아 타계성도

(남산주 장로 장모, 김계희 권사 모친, 3 교구 개나리4구역) / 21일 별세, 23일 장례

결혼

남전전도회

1. 오한 8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2:30(3주예배 후)

장소 : 영아부실

2. 오한 14지회 월례회

권사회 전체 월례회

일시 : 31일(다음주일) 15:00

장소 : 칼빈리틀

총목장내인 공동생활가정 물품유언 안내

총현복지관에서는 총목장내인(전진성씨·김진장씨)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새 물감, 쓰러진 물건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총목장내인의 따뜻한 보탬이 마련해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전자제품 : 냉장고, TV, VTR, 에어컨, 세탁기, 전자렌지, 컴퓨터, 프린터, 카세트, 시디기

가 구 : 책상, 의자, 옷장, 책장, TV받침대

주방용품 : 가스렌지, 프라이팬, 냄비 등

기 타 : 벽시계, 헤어드라이머, 전화기, 다리미, 커피분쇄기

문 의 : 총현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504-4855, 내선 5번)

2002년 전반기 총현전도대 훈련

일시 : 27일(수) 13:30 장소 : 나사렛홀

이·미용 봉사자 모집

제기 봉사자를 교육하고자 합니다.

지역 : 본 교회 성도 40세~55세.

사명감이 있는 분

문의 : 031-704-0420 / 016-268-8259 (총무)

분실물 찾아가세요

교회 내에서 분실한 물건이 있는 분은

교회 사무국으로 오셔서 찾아가세요.

감사위원회 상반기 정기감사 실시

금년도 상반기 정기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부서의 회계는 감사위원을 준비하시어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대상 - 각 기관별 2001년도 결산 / 각 기관별 2002년도 1월분 자산

2. 감사실시기간 : 2002년 2월~3월말

3. 감사실시장소 : 제1교육관 208호 감사위원회실

4. 제출서류 : 시산표,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등 증빙서류, 시제한금 또는 예금증명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08	최정숙	1	루디아	이옥남(1)	218	최정숙	6	베드로	
209	민단진	2	청년2부		219	사육신	19	대학부	
210	장순	2	청년2부		220	김진애	19	대학부	
211	고을현	19	청년2부	윤효남(2)	221	김현희	19	대학부	
212	최인주	2	베드로		222	박병희	19	대학부	
213	손미화	2	에디스		223	김현희	19	대학부	김진희(19)
214	박순옥	3	루디아		224	이종훈	19	청년1부	원정희(14)
215	전지선	3	대학부		225	김도훈	19	청년1부	
216	전태민	3	고교부		226	김기연	19	청년1부	김정훈(4)
217	이민주	1	청년2부						

* 총현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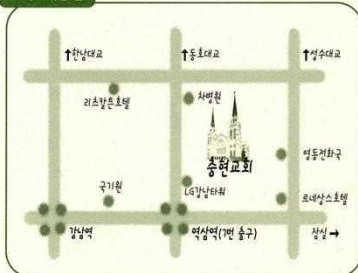
공동의회

안 건 안수집사·권사 후보자 선정을 위한 건(件)

일 시 3월 31일(다음주일) 4부 예배 후.

장 소 본당에서 대 상 등록 세례교인

교회 오시는 길



예배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국기동행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드리는 예배)	본 당
찬 양 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배	1:00~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 요 집 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성·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노경현	오진국	이병학
신교동(광명)	성경(광명)	김태기	17교구	교구위원장
윤인현	최태민	엄필선	김도훈	오정현
신교동	총무(광명)	신교동	7교구	제2교구위원장
이 훈	남산주	경윤성	김영길	문후구
전진성(명동)	3교구	2교구	제1교구	총무(명동)
조인재	김종구	최무길	김진태	이창호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식	윤정철
신교동(광명)	신교동(광명)	신교동(광명)	신교동(광명)	신교동(광명)
이화영	이병욱	안동욱	최명환	임두원
신교동(광명)	신교동(광명)	신교동(광명)	신교동(광명)	신교동(광명)
이종식	최기호	이갑재	전종훈	전종훈
제1교구위원장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이정우	김단용	황형일	한승균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장종식	김한기	한승원	이형수	안동현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김동환	차명현	김병태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서광진	정재성	이준경	박기연	여성기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류병희	노경득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김교성	송길환	신교동	이유진	안정희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고광환				
신교동				

■ 찬양감독 강인구

■ 여전도사

정원희	김경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김옥을	안영준	김연희	홍순애	이옥자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김정란	안대현	최희성	김정연	조옥자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강덕림	김정선	장영희	최문실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신교동	
■ 교정전도사 박영덕				
■ 선교전도사 정은희				

■ 단기선교사 강기엽(스위스)

■ 단기선교사 최은아(스위스)

■ 협력선교사 허효섭(미국)